

동남아 판로개척 발판 마련

전북도-베트남 다락성 뿌리기술 인력교류 본격 시동 다락성 기술자 대상 용접·이론·실습 교육 등 진행

전북도는 19일부터 3주간 베트남 다락성의 청년 뿌리기술 연수생 6명이 도내 뿌리기업에서 기술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남아 뿌리기술 인력교류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하고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 (사)전북베트남교류증진협회가 협력하여 실시되었다.

도는 다락성과 우호교류협력체결 및 양지역 기계협회 간 MOU체결을 계기로 활발해진 양 지역간 기술교류논의의 결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동남아 뿌리·기계분야 기술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응원 탄 후, 응원 판 단 황 등 6명의 다락성 청년기술자로 구성된 1차 연수생은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완주군과 전주시에 위치한 뿌리기업(세화정공, 미르기계)에 파견되어, 용접, 금형설계, 자동차금형 분야의 숙련기술자로부터 이론과 실습 기술연수를 받는다.

이를 시작으로 9월부터 3주간 2차 초청 연수과정을 진행, 10월중 약 2주간 도내 뿌리기업 숙련기술자가 다락성 뿌리기업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기

술교육 및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혜수 주력산업과장은 "기술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한 베트남 청년들이 양국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우리도의 뿌리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본 사업을 통해 현지 기업과 도내 뿌리기업이 직접 연결되어 동남아 판로개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으며, "나이가 해외 인력수급을 통한 도내 뿌리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세종에 등지 트 과기부 현판 제막식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준희 세종시장 등이 19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한 민간건물에 마련된 청사에서 현판제막식을 갖고 있다.

“전북대도약 시대, 함께 열어가요”

도민 정책참여단 공개 모집

전북도가 도민과 함께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정책 수립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는 '도민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9월 6일까지이며, 도정에 관심이 있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발적인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도민 정책참여단'의 주요 역할은 전북 대도약의 정책방향 수립 및 정책발굴 관련 토론회, 도민 설문조사, 원탁회의, 보고회 등에 직접 참여해 정책제언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게

되며 지난 5월 새롭게 구축된 전북도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 '전북 소통대로'에서도 본인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제안하거나 도민들의 제안에 댓글게시, 공감표시 등을 통해서도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도민 정책참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집인원은 지역·연령·성별·관심 분야 등을 고려하여 100여 명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발적 도민 정책참여단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위촉장 수여와 함께 도정의 이해와 적극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두어 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온·오프라인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의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도민 정책참여단'은 다음달 25일 '도인구정책 브랜딩 사업' 발목을 위한 '인구정책 해커톤'에서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도민 누구나 의견제시와 정책참여가 가능하다"면서, "도정에 관심 있고 활동에 열정적인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는 전북도 홈페이지 및 전북소통대로(전북도 정책소통플랫폼)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업로드 또는 이메일, 직접방문 및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전북농업기술원, 산학연 협력사업 중간평가회 실시

한우·허브·수박 등 전략작목 육성 통한 삼각농정 조기 실현

전북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지역전략작목 육성을 위하여 최근 대학교수, 농업인, 농촌진흥청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광역화사업 중간평가회를 개최했다.

전북의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광역화사업은 한우, 허브, 수박 3개 작목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작목선도 농업인, 관계공무원 등 97명의 기술전문위원들이 작물재배, 병해충, 가공, 가족사육 등 분야별로 새로운 기술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이번 중간평가회에서 한우협력단은 미경산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동

사육장 운영을 통한 '고운소'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전북 명품한우 육성을 위하여 노력했으며 또한, 전북한우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경산한우를 이용한 육가공품 만들기 체험활동 및 시식회를 개최하고 암소유전능력 평가와 혈통정보 관리를 지원하여 농가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브협력단은 자생허브인 곤달비의 6차 산업화를 위하여 팥투어를 통한 곤달비 수확, 비누만들기 등의 체험행사와 곤달비를 이용한 빵, 잼아찌 등의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함으로써 체험 및 관광을 통한 농촌산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했다는 평가

를 받았다. 수박협력단은 고당도, 프리미엄 수박 브랜드를 개발하여 고급화, 차별화를 극대화하였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아이스 수박을 판매하여 새로운 유통경로를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였으며대도시 대형유통업체에서 홍보행사를 실시하여 전북 수박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수박의 상품성 제고와 소득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 농업기술원 김학주 원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하여 3개 산학연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삼각농정을 실천하는 실용성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내 지역전략작목이 산학연협력사업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스카우트전북연맹 신임 연맹장에 권혁 씨 선출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은 제12대 신임 전북연맹장에 권혁(65)씨를 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스카우트전북연맹에 따르면 전주



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63차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 지방장기 총회에서 권혁 씨를 전북연맹장에 조현철(우석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최봉래(파리종합건설 이사)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직선 이사를 신임감사로 선출했다.

권혁 전북연맹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라고교와 조선대 체육학과(학·석사), 우

석대(박사)를 졸업했다.

신임 권혁 전북연맹장은 오는 2023년 제20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위해 스카우트이념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과 결산,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과 함께 유공지도자의 표창과 평생회원증 전달 등이 함께 진행됐다.

/뉴스스

우리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널리 널리'

도, 무궁화 품평회 동상 수상 우수분화 대아수목원에 전시

전북도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2019년 전국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2년 연속 단체부문 동상(산림청장상), 개인부문 입선(산림청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무궁화 품평회에는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나라꽃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출품한 1251점의 분화를 대상으로 작품성, 관리성, 심미성,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도가 출품한 작품들(70점)은 심사 결과 무궁화 품종의 수형·가지·잎

의 상태, 전정 등 관리기술, 품종 고유의 화형 및 수형의 아름다움, 꽃의 수량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단체부문 동상(산림청장상), 개인부문 입선(산림청장상)을 수상해 도내 무궁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대아수목원에서는 이 같은 좋은 결과를 도민들과 함께하고자 품평회 수상작 및 참가작을 대아수목원 진입교에 오는 10월 31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양정기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무궁화 분화 연구에 힘써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널리 알리겠으며, 도민들이 나라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